

# 자영업자 ‘출산 배우자’ 지원 확대 서울시, 시민수요 반영 규제 완화

### 출산 배우자 서울 거주 요건과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기한 연장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 A씨(남)는 지난달 아내가 출산을 해 서울시가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대상이 되지 않아 할 수 없었다.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경우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무관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자격요건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3월 11일 신청 개시 이후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 신청이 되지 않은 사례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가 있는지, 제도의 형평성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고 설명했다.

지원기준 완화사항은 크게 2가지로, 출산 배우자의 서울 거주 요건 폐지와 1인 자영업자 사업장 소재지 서울 요건 폐지이다.

우선,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와 출산 배우자, 출

생자녀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신청일 기준)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출산한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인 자영업자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일 경우 지원한다는 요건을 폐지, 사업장이 어디에 있든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출산한 가구의 돌봄과 육아가 이뤄지는 생활 기반인 ‘거주지’를 중심으로 지원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신청기간도 연장했다. 지난해 4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존에는 올해 6월 말까지 신청해야 했으나, 오는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더 많은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아빠들의 양육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세심하고 촘촘하게 정책을 살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탄생응원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 ‘경기 기후보험’ 세계 지방정부서 주목

경기도, UCLG ASPAC 회의 참석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시행 중인 ‘경기 기후보험’을 세계 무대에 소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다.

경기도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세계지방정부 연합 아시아-태평양지부(UCLG ASPAC) 회의에 참석해 우수 정책 소개 시간에서 주제 발표로 ‘경기 기후보험’을 알렸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경기 기후보험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부터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 최초의 정책보험으로, 별도 가입 절차없이 도민이면 누

구나 자동 가입된다. 이 보험은 온열질환, 한랭질환, 감염병 등의 진단비와 기상특보 관련 상해 시 지급되는 위로금 등을 정책 보장한다.

주제 발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순환경제’를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됐다. 경기도는 RE100, 자원재활용, 환경교육 등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를 주관한 세계지방정부연합은 전 세계 140개국 24만여 개 지방자치단체 및 175개 지자체 협의체가 소속된 국제기구로 지방정부 간 정책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부에는 217개의 지자체가 가입했다.

/경기=유진채 기자 yujin@



2025 플레이엑스포 행사 전경.

# GTX-A 개통... 킨텍스 행사 영역 확장

서울역서 16분... 접근성 개선 성과

GTX-A(수도권광역급행철도) 개통 이후 킨텍스에서 열리는 행사의 폭이 전시를 넘어 게임,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교통 접근성의 획기적 개선이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흐름까지 바꾸고 있는 것이다.

“GTX-A 개통 이후 킨텍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르의 행사가 집중되며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서의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GTX-A를 통해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의 이동 시간이 약 16분대로 단축되면서 수도권은 물론 지방, 해외 방문객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 것이 주요 배경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글로벌 게임 기업

닌텐도의 ‘닌텐도 스위치 2 체험회’다. 이 행사는 뉴욕, 런던, 파리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만 열리며, 한국에서는 지난 5월 처음으로 킨텍스에서 개최됐다. 당초 킨텍스는 후보지로 우선순위에 들지 않았지만, GTX-A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설명 이후 닌텐도 측이 직접 킨텍스를 방문해 개최를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열린 ‘2025 플레이엑스포’ 역시 GTX-A 효과를 입증했다. “GTX-A를 통한 접근성이 뛰어나다”는 평가 속에 약 7만 명이 방문했으며, 1억 2,244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기록하며 킨텍스의 글로벌 게임 비즈니스 플랫폼 가능성을 드러냈다.

/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 ‘수시 6회 제한 제외’ 특성화대 수시지원 반도체 전형 신설... 면접서 사고력 평가

대학 수시모집 응시 6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가 2026학년도에도 자유로운 지원 환경과 차별화된 전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들 대학은 수능최저 기준 없이 서류 중심 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반도체 관련 전형 신설과 면접 강화 등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원 기회는 넓지만 경쟁은 치열해, 대학별 전형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 ◆ KAIST, 반도체 인재 전형 신설

KAIST는 수시에서 총 825명을 모집한다. 전형은 Early Admission(315명)과 Regular Admission(510명)으로 구분된다. Early Admission은 면접 없이 서류 100%로 선발하며, Regular Admission은 1단계 서류 평가 후 2단계 면접을 통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서류와 면접 성적은 각각 4대 6 비율로 반영된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반도체시스템공학과 지원자를 위한 ‘반도체시스템인재전형 I·II’가 신설됐다. 자기소개서, 독서이력, 교사추천서가 모든 전형에서 필수로 요구되며, 활동 증빙자료 제출도 가능하다.

GIST는 수시에서 총 215명 내외를 선발한다. 일반전형 150명, 학교장추천전형 40명, 고른기회전형 15명, 특기

자전형 10명 등으로 구성되며, 반도체공학과 인원(25명)은 일반전형에 포함된다.

모든 전형은 1단계 서류 평가 후 면접을 진행한다. 일반·추천·고른기회전형은 서류 60%, 면접 40%를 반영하며, 특기자전형은 비율 구분 없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 제출은 필수다.

### KAIST, 반도체시스템 전형 신설 총 825명... 서류 100% 선발도

DGIST, 일반 등 총 222명 선발  
UNIST, 이공계·경영계열 모집  
KENTECH ‘창의성 면접’ 진행

### ◆ DGIST, 추천전형 대폭 확대

DGIST는 전년보다 7명 늘어난 222명을 선발한다.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115명, 학교장추천전형 77명, 고른기회전형 20명, 과학인재전형 10명이다. 일반·추천·고른기회 전형은 모두 서류 100%로 선발하며, 과학인재전형은 서류+면접을 각 50% 반영한다.

자기소개서는 공통 제출 항목이며, 추천전형에 한해 교사추천서도 필요하다. 다만 교사추천서 내 서술형 문항은 선택 항목으로 변경됐다.

UNIST는 과학기술원 중 유일하게 이공계(무학과·반도체공학과)와 경영

계열을 함께 모집하며, 총 465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전형은 약 310명으로 구성되며, 지역인재전형(65명), 탐구우수전형(50명), 고른기회전형(40명)이 별도 운영된다.

탐구우수전형을 제외한 모든 전형은 서류평가 100%로 진행되며, 탐구우수전형은 서류와 면접을 각각 50% 반영한다. 제출 서류는 간소화돼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 중심으로 구성된다.

### ◆ KENTECH, 창의성 면접 중심

KENTECH는 에너지공학부 단일 모집단위에서 수시 100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90명)과 고른기회전형(10명)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영되며, 특기자전형은 따로 없다.

1단계에서 서류로 5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창의성 면접’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평가한다. 자기소개서 제출은 생각가능하다는 점에서 타 과기와 차별화된다. 실제 면접에서는 기존 수학·과학 중심의 구술 면접 대신, 다양한 상황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한다.

우연철 전학사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과학기술원과 KENTECH은 수시 지원 제한이 없지만 허수 지원은 적고, 실제 경쟁력 높은 수험생이 몰린다”라며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대비 등 대학별 전형 방식에 맞춘 전략적 준비가 필수”라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